

대학생의 사회부과적 완벽주의와 사회불안의 관계: 사회적 지지와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의 매개효과*

박 지 연

양 난 미†

경상대학교

본 연구는 대학생의 사회불안을 이해하기 위하여 사회부과적 완벽주의, 사회적 지지,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사회부과적 완벽주의 성향이 있는 대학생들이 어떤 과정으로 사회불안을 겪게 되는지를 이해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모형 비교를 통해 사회부과적 완벽주의와 사회불안의 관계를 가장 잘 설명해주는 모형을 설정하여 사회적 지지와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남녀 대학생 357명이었고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부과적 완벽주의와 사회적 지지,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사회불안간의 관계를 가장 잘 설명하는 구조적 모형은 사회적 지지와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의 완전매개모형으로 나타났다. 둘째, 매개변인 각각의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사회적 지지의 수준보다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의 수준이 사회불안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대학생들의 사회불안을 이해하고, 상담장면에서 사회불안의 문제를 호소하는 대학생 내담자를 맞이하였을 때 초점을 두고 개입하는 방향을 설정하는 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사회불안, 사회부과적 완벽주의, 사회적 지지,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대학생

* 본 연구는 박지연(2014)의 경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대학생의 사회부과적 완벽주의와 사회불안의 관계: 사회적 지지와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의 매개효과'를 일부 수정한 것임.

† 교신저자 : 양난미, 경상대학교 심리학과, 여성연구소 부소장, 경남 진주시 진주대로 501, 사회대 434호
Tel : 055-772-1265, E-mail : behelper@gnu.ac.kr

사회불안은 사회적 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평가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련의 불안증상으로, 낯선 사람들에게 노출되거나 다른 사람들이 지켜볼 수 있는 사회적 상황에서 현저하고 지속적으로 두려움을 느끼고, 수치스럽거나 당혹스러운 방식으로 행동할까 두려워하는 인지적, 정서적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정의될 수 있다(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그리고 이러한 사회불안의 증상은 그 정도에 따라 사람마다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의와 평가를 받는 상황에서 어떤 일이나 행동을 할 때 긴장감과 불안을 느끼게 된다. 이는 보편적인 경험으로, 어느 정도의 사회불안은 대인관계나 과제수행에 있어 적절한 긴장감을 가지게 함으로써 긍정적인 기능을 한다(김나예, 2012). 하지만 과도한 사회불안은 개인의 안정감이나 정체감, 인격형성을 비롯하여 학업, 진로, 대인관계 등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국민 건강보험공단의 보도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사회불안으로 치료받은 사람들은 1만 4000여명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2005년에 비해 53% 증가한 수치였고, 그 중에서도 20대의 수는 4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김순희, 2009). 또한 보건복지부가 전국 만 18~74세 성인 6,022명을 대상으로 25개 주요 정신질환을 앓은 경험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성인 10명 중 1명은 우울증·공황장애·강박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 중에서도 사회공포증·강박증·공황장애 등 사회적인 상황에서 불안장애를 경험한 사람은 지난 2006년 6.9%에서 2011년 8.7%로 증가했다(서울경제, 2012). 이러한 결과는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과 불특정 다수와의 경쟁 속에서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느끼는 불안이 점점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과거에는 사회불안을 일상적인 사회적 상황에서 불안을 느끼고 피하려고 하는 일반화된 유형으로 이해하였지만, 정신장애의 진단 및 통계편람(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DSM-V)에서는 사회불안을 일반적인 사회적 상황에서 느끼는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예: 대화를 나누거나 낯선 사람을 만나는 것), 관찰되는 불안(예: 다른 사람이 보는 앞에서 음료를 마시거나 음식을 먹는 것), 타인들 앞에서 수행하는 것에 대한 불안(예: 연설이나 발표하는 것)으로 구분하고 있다. 김민선과 서영석(2009)의 연구에서 사회불안은 수행불안과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으로 구분이 되었는데, 수행불안은 다른 사람이 자신의 수행을 관찰하는 상황에서 느끼는 불안이며,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은 다른 사람과 만나거나 이야기하는 상황에서 느끼는 불안으로 정의되었다. 박선영(2003)은 사회불안을 수행상황과 상호작용상황으로 분류하여 각각의 상황에서 불안을 느끼는 사람들의 특징을 연구하였는데, 수행상황에서 불안해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이나 외모에 과도한 주의를 기울이며 자신이 어떻게 보이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상호작용상황에서 불안을 보이는 사람들은 권위있는 사람 혹은 낯선 사람과 있는 상황에서 자신이 관찰된다고 느낄 때 불안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불안을 느끼면 발표장면과 같은 학업상황이나 대인관계를 포함한 사회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 중·고등학교 때와는 다르게 대학생들은 낯선 사람과의 만남이 잦고, 발표나 조별과제, 아르바이트, 데이트, 면접 등과 같이 타인의 시선 및 평가에 민감한

환경을 접하기 때문에 학업 및 대인관계에서 사회불안을 경험할 가능성이 더 높다. 또한 요즘의 대학생들은 중·고등학생, 이르면 초등학생 때부터 등급제도와 같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환경에서 생활하며 다른 사람과 경쟁하는 삶에 익숙해져 있다. 그 결과 타인보다 더 잘하고자 하는 욕구로 인해 완벽주의를 추구하게 된다. 대학생들이 가지는 이러한 완벽주의는 심리적인 부적응, 특히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대학생들은 완벽주의가 성공에 기여해왔다고 믿기 때문에 완벽주의를 포기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는데, 지나치게 완벽을 추구할 경우 자신의 높은 기대 수준에 못 미치는 것에 대하여 자신을 비난하고 불안감을 느끼며 자신을 힘들게 할 수 있다(김나예, 2012). 완벽주의는 급변하고 성취지향적이며 경쟁력을 추구하는 현대사회에서 요구되는 바람직한 특성으로 여겨지고 있지만 그에 대한 긍정적 측면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측면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적절한 수준의 완벽주의와 완벽주의의 긍정적인 측면은 개인이 생활에 적응하는데 도움을 주지만, 과도한 수준의 부정적인 완벽주의 성향은 개인의 생활에서 부적응적인 행동을 하게 하기도 하고 높은 심리적 부담을 수반하여 다양한 심리적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이다.

오래전부터 완벽주의적인 성향은 부적응적이거나 신경증적인 성격 특성으로 여겨져 상담 및 심리치료의 치료적 관심을 받아왔다(Burns, 1980). 하지만 1990년대 초반 이후에는 비교적 적응적이고 정상적인 특성까지 포괄하는 다차원적인 개념으로 이해되어져 오고 있다(Flett & Hewitt, 2002; Frost, Marten, Lahart, & Rosenblate, 1990). 완벽주의에 대한 다양한 정의에 따라 많은 연구들(남궁혜정, 이영호,

2005; 이미화, 류진혜, 2002; Campbell & Di Paula, 2002; Frost, Heimberg, Holt, Mattia, & Neubauer, 1993)이 완벽주의가 하위요인 혹은 차원에 따라 적응적이고 순기능적인 측면과 부적응적이고 역기능적인 측면으로 나누어질 수 있음을 비교적 일관되게 보여주고 있다. 연구들을 살펴보면 적응적인 완벽주의 성향은 자신의 성취와 관련해 높은 기준과 목표를 가지는 경우이며 부적응적인 완벽주의 성향은 외부의 기대를 충족시키거나 타인의 인정을 받기 위해 완벽을 기하려는 경우를 말한다(김윤희, 서수균, 2008). 적응적인 완벽주의는 긍정적 정서, 학업성취 및 적응, 높은 자존감, 사회적응 등의 긍정적인 특성들과 상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Stoeber & Otto, 2007)되어 온 반면, 부적응적인 완벽주의는 우울, 자살사고, 불안, 약물남용, 섭식장애 등의 다양한 형태의 심리적, 신체적 문제들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져 왔다(Flett & Hewitt, 2002; Sherry, Law, Hewitt, Flett, & Besser, 2008).

다차원적인 완벽주의의 특성이 밝혀지면서 다양한 측정도구들이 개발되어 왔는데 그 중에 가장 널리 연구에 사용되는 완벽주의는 Hewitt와 Flett(1991)이 개발한 다차원적 완벽주의 척도(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Scale)라고 할 수 있다(Chang, 2006). Hewitt와 Flett(1991)에 따르면, 완벽주의는 자기지향적 완벽주의(Self-oriented perfectionism), 타인지향적 완벽주의(Other-oriented perfectionism),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로 구성되는 다차원적인 특성이다. 자기지향적 완벽주의는 개인이 스스로에게 높은 수행 목표 또는 기준을 설정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경향을 말하며, 타인지향적 완벽주의는 다른 사람을 향해 높은 기준을 정하고 그 사

람이 그 기준에 부합되도록 기대하는 경향을 가리킨다.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완벽하기를 기대한다고 믿는 경향을 나타낸다. 다양한 연구들에서 자기지향적 완벽주의는 성취관련 스트레스 상황에서 우울 증상과 정적인 관련성을 보이지만(Enns & Cox, 2005; Hewitt & Flett, 1993), 비교적 일관되게 긍정적인 정서와 정적 상관을 보이면서(김현정, 손정락, 2006; 이미화, 2001; Flett, Hewitt, Blankstein, & O'Brien, 1991) 완벽주의의 비교적 적응적인 측면을 반영한다고 알려져 있다. 타인지향적 완벽주의는 타인에 대한 비난, 적대감, 불신감 등으로 인한 대인관계에서의 좌절감을 갖기 때문에 부적응적인 것으로 개념화되긴 했지만(Hewitt & Flett, 1993), 우울(문경, 1998; Chow, 2002) 및 주관적 안녕감(김현정, 손정락, 2006; 허현정, 2004)과의 관련성을 검토한 연구들에서 서로 불일치하는 결과를 보임으로써 현재까지는 그 속성이 명료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다. 세 가지 완벽주의 차원 중 대부분의 연구에서 일관되게 부적응적인 심리상태와 높은 관련성을 보이면서 완벽주의의 가장 병리적인 요소로 알려져 있는 것이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이다(하정희, 장유진, 2011). 구체적으로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는 우울, 불안, 스트레스, 자살 사고 및 성격장애 등 다양한 심리적 문제들과 유의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문경, 1998; 한기연, 1993; 홍석인, 현명호, 2007; Dean, Range, & Goggin, 1996; Flett, Besser, & Hewitt, 2005; Frost et al., 1993). 김현정과 손정락(2006)은 긍정적인 속성에 포함되는 주관적 안녕감, 삶의 행복과 사회부과적 완벽주의의 관련성에 대하여 연구하였는데 사회부과적 완벽주의는 주관적 안녕감, 삶의 행

복과 일관적으로 부적인 상관을 보였다. 손은정(2013)의 연구에서도 사회부과적 완벽주의는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부적인 상관을 나타내었다. 이처럼 사회부과적 완벽주의는 완벽주의의 병리적인고 부적응적인 측면임이 일관성 있게 보고되고 있다.

부적응적인 완벽주의의 특성과 더불어 연구자들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완벽주의 성향이 사회불안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그 결과 실수에 대해 염려를 하는 경향이나 자신의 수행에 대한 의심과 같은 완벽주의의 특성은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Kawamura, Hunt, Frost, & Dibartolo, 1998). 또한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은 사회불안의 심각도 및 사회적 상황에 대한 회피와 강한 정적 상관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되었으며(Carver & Scheier, 1982), Clark과 Wells(1995)도 사회불안이 부정적 평가를 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서 발생한다는 개념을 지지하였다. 완벽주의와 사회불안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는 완벽주의 성향이 높을수록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높았고,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높을수록 사회불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민선, 서영석, 2009; 김성주, 2012). 또한 김나예(2012)는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은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사회불안의 관계를 부분매개한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사회부과적 완벽주의와 더불어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은 사회불안의 이해에 있어서 중요한 개인 내적 변인이라 할 수 있으며, 이들의 관계성에 관한 연구는 사회불안을 경험하는 사람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완벽주의나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같은 개인의 성격적 변인 이외에도 환경적인 변인을 지각하는 것 역시 불안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스트레스 상황에서 느끼는 불안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알려진 사회적 지지는 지각하는 정도가 낮을수록 불안과 같은 부정적인 심리적 스트레스를 더 경험하게 되며, 이를 지각하는 수준이 높을수록 보다 더 긍정적인 사고를 하게 되어 개인의 전반적인 적응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다. 사회적 지지에 관한 연구에서는 객관적으로 측정된 사회적 지지의 양보다는 개인이 지지자원에 대해 얼마나 지각하고 있는지에 관심을 가진다. 개인이 지각하는 지지가 중요한 이유는 객관적 지지 자원이 있다는 것과 개인이 지지를 받았다고 지각하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으며, 타인에게서 지지를 제공받는다 하더라도 본인이 지지를 받고 있다고 해석하지 않는다면 진정한 지지로 이용될 수 없기 때문이다 (박지원, 1985).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가 높은 사람들은 대인관계에서 타인의 평가에 대해 지나치게 민감하며, 이로 인해 자신이 받고 있는 사회적 지지가 부족하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음이 여러 연구에서 밝혀졌다 (Mackinnon et al., 2011; Sherry & Hall, 2009; Sherry et al., 2008). 또한 하정희와 장유진 (2011)의 연구에서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 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사회적인 관계에서 자신이 받고 있는 사회적 지지가 부족하다고 인식하여 그들이 느끼는 주관적 안녕감 또한 감소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우울과 불안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영향을 연구한 이영자(1995)는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우울과 불안의 수준이 낮다고 보고하였고,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Hart 등 (1991)은 사회적 지지가 불안의 감소와 관련이

있으며, 높은 수준의 사회적 지지는 심리적 스트레스의 수준을 낮춘다고 하였다. 즉 자신이 의미있는 타인으로부터 관심과 애정 및 격려를 받는다고 지각할 때 스트레스에 직면하여도 불안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을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는 사회불안을 타인이 관찰가능한 사회적 상황에서 느끼는 개인의 불안으로 정의하고, 수행상황에서 느끼는 불안과 상호작용상황에서 느끼는 불안으로 구분하여 다른 변인과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는 대학생의 사회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심리적 요인들 중 사회부과적 완벽주의와 사회적 지지,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에 초점을 두고 사회불안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특히, 사회부과적 완벽주의와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의 매개효과에 관한 연구는 다수 존재하지만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살펴보는 연구는 부족하였다는 점에 기반하여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외에도 사회적 지지를 매개변인으로 설정하여 변인들 간의 관계를 탐색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관계를 토대로 모든 경우의 수를 포함하여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을 설정하였다. 연구모형은 독립변인인 사회부과적 완벽주의와 종속변인인 사회불안 사이를 사회적 지지,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부분매개하는 모형으로 모든 변인간의 관계를 가정한 포화모형이다. 경쟁모형 1은 사회부과적 완벽주의와 사회불안의 직접경로를 가정하고, 사회적 지지와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을 매개변인으로 설정한 모형이다. 이는 사회부과적 완벽주의 성향이 높을수록 받고 있는 사회적 지지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하정희, 장유진, 2011; Mackinnon et al., 2011; Sherry & Hall, 2009)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사회불안은 낮아진다는 연구(원호택, 송중용, 1988; 이영자, 1995; 조미영, 1999; Hart, Hittner, & Paras, 1991; Turner, 1981)와 완벽주의와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의 부분매개효과를 확인한 연구(김민선, 서영석, 2009; Frost & Dibartolo, 2002)를 토대로 설정하였다.

경쟁모형 2는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사회적 지지 사이에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다고 보고한 이진숙과 현명호(2012)의 연구를 참고하여 두 매개변인인 사회적 지지와 부정적 평가에 대한 직접경로를 가정하였다. 그리고 사회부과적 완벽주의와 사회불안 사이의 직접 경로를 제외한 부분매개모형으로 설정하였다. 마지막으로 두 매개변인의 완전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사회부과적 완벽주의와 사회불안, 사회적 지지와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사이의 직접경로를 제거한 모형을 경쟁모형 3으로 설정하였다. 이를 통하여 사회부과적 완벽주의와 사회불안의 관계를 가장 잘 설명하는 모형을 밝히고, 각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과 매개효과를 확인함으로써 상담장면에서 사회불안의 문제를 호소하는 대학생 내담자를 맞이하였을 때 초점을 두고 개입해야하는 전략

들을 알아보려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부과적 완벽주의와 사회적 지지,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사회불안의 관계는 어떠한가? 둘째, 사회부과적 완벽주의와 사회적 지지,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사회불안간의 관계를 가장 잘 설명하는 구조적 모형은 어떤 것인가? 셋째, 사회부과적 완벽주의와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의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그리고 연구문제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제시하였다. 첫째,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와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는 낮을수록 사회불안은 높을 것이다.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는 낮고,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은 높을 것이다. 사회적 지지가 낮을수록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은 높을 것이다. 둘째, 사회적 지지와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사회부과적 완벽주의와 사회불안의 관계를 부분매개하며, 모형의 모든 경로가 유의미한 경로계수를 나타내는 연구모형이 변인들 간의 관계를 가장 잘 설명할 것이다. 셋째, 사회적 지지와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은 사회부과적 완벽주의와 사회불안의 관계를 부분매개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사회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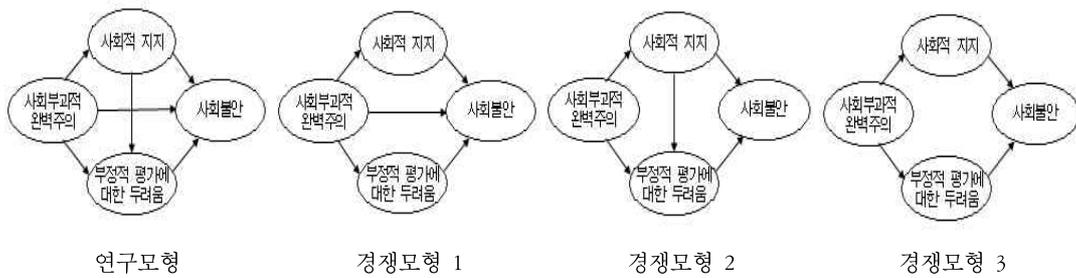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의 설정

과적 완벽주의 성향과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높을수록 사회불안의 정도는 높을 것이다. 또한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의 수준이 낮을수록 사회불안의 정도는 높아질 것이다.

의 두 가지 유형의 설문지를 제작하여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설문에 참여한 참여자들에게는 1,000원 상당의 답례품을 지급하였다. 설문은 2013년 5월~6월 한 달 동안 이루어졌으며, 설문지 작성에 소요된 시간은 15~20분 정도였다.

방 법

측정도구

참여자

사회부과적 완벽주의

서울 및 지방의 4년제 대학생 396명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회수된 설문지 중 응답이 불성실한 자료 3부와 결측치가 있는 자료 36부를 분석에서 제외하여, 총 357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참여자는 남학생이 186명(52.1%), 여학생이 166명(46.5%), 무응답이 5명(1.4%)이었고, 연령은 17세~32세 사이였으며 평균 21.60세($SD=2.64$)였다. 학년별 분포는 1학년 76명(21.3%), 2학년 109명(30.5%), 3학년 101명(28.3%), 4학년 70명(19.6%), 무응답 1명(0.3%)이었다. 전공을 살펴보면 인문사회계열이 157명(44.0%), 자연과학계열 73명(20.4%), 공학계열 42명(11.8%), 농학계열 35명(9.8%), 예술체육계열 31명(8.7%), 기타 18명(5.0%), 무응답 1명(0.3%)으로 나타났다.

대학생들의 사회부과적 완벽주의를 측정하기 위해 Hewitt와 Flett(1991)의 다차원적 완벽주의 척도(HFMPS)의 하위요인인 ‘사회부과적 완벽주의’를 한기연(1993)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척도는 총 15문항으로 ‘전혀 아니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7점)’의 7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정문항은 역채점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완벽주의 성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Hewitt와 Flett(1991)의 연구에서 *Cronbach's a*는 .87로 나타났고 한기연(1993)의 연구에서는 .76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사회부과적 완벽주의의 *Cronbach's a*는 .79로 나타났다.

연구절차

사회적 지지

설문지는 서울과 경기도, 부산, 대구, 대전, 경남 지역의 4년제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자기보고식 설문지를 실시하였으며, 참여자들에게 설문지가 연구에 사용되는 것에 동의하는지를 묻고 동의에 표시한 설문지만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그리고 문항의 제시 순서에 의한 순서 효과를 없애기 위해 A형과 B형

대학생들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기 위해 박지원(1985)이 개발하고 최유열(2012)이 4점으로 사용한 척도를 5점 척도로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척도는 25문항으로 정서적 지지, 정보적 지지, 물질적 지지, 평가적 지지의 4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를 더 받는다고 지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박지원(1985)의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의 *Cronbach's a*는 .94였고, 최유열(2012)의 연구에

서 *Cronbach's a*는 전체 .96, 정서적 지지 .87, 정보적 지지 .91, 물질적 지지 .83, 평가적 지지 .83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는 전체 .96, 하위요인은 각각 .90, .90, .84, .86이었다.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타인으로부터 부정적으로 평가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을 측정하기 위해 Watson과 Friend(1969)가 30문항으로 제작한 것을 Leary(1983)가 전체점수와 .50이상의 상관을 보인 12문항만을 뽑아 단축형으로 제작한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척도(BFNE)를 이정윤과 최정훈(1997)이 번안하고 타당화한 것을 사용하였다. 문항은 '전혀 아니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으로 구성되며, 부정문항은 역채점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정윤과 최정훈(1997)의 연구에서 *Cronbach's a*는 .90, 4주 간격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80이었고, 본 연구에서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의 *Cronbach's a*는 .90이었다.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

대학생들이 사회적인 상호작용상황에서 느끼는 불안을 알아보기 위하여 Mattick과 Clarke(1998)가 개발하고 김향숙(2001)이 번안 및 타당화한 척도(SIAS)를 사용하였다. 척도는 모두 19문항으로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0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의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정문항은 역채점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상호작용 과정에서 겪는 불안을 많이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 김향숙(2001)의 연구에서 *Cronbach's a*는 .88에서 .94로 나타났고 4주 간격 검사-재검사 신뢰도와 12주 간격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92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a*는 .92로 나타났다.

사회적 공포

대학생들이 수행상황에서 느끼는 불안을 알아보기 위하여 Mattick과 Clarke(1998)가 개발하고 김향숙(2001)이 번안 및 타당화한 척도(SPS)로 모두 20문항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0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의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수행 상황에서의 불안이 높음을 의미한다. 김향숙(2001)의 연구에서 *Cronbach's a*는 .89에서 .95로 나타났고 4주간격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91, 12주 간격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93이었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a*는 .95였으며, 사회불안 전체의 *Cronbach's a*는 .96으로 나타났다.

자료분석

사용된 척도들의 신뢰도 분석을 위해 *Cronbach's a*를 살펴보고, 각 변인들의 일반적인 특성과 변인 간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분석,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검증을 위해서는 결측치가 없어야 하기 때문에 결측치가 있는 자료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다음으로 앞서 각 변수들이 다변량 정규분포를 따르는지 확인하기 위해 왜도, 첨도와 이상치를 점검하였다. 왜도와 첨도는 왜도 2이상 혹은 첨도 7이상인 경우가 아니면 추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West, Finch와 Curran(1995)의 기준에 따라 검토하였다. 추정방법으로는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ML)을 사용하였다. 이 때 사회부과적 완벽주의와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은 단일변인이었기 때문에 Russel, Kahn, Spoth와 Altmaier(1988)의 권유에 따라 3개의 문항꾸러

미(Item-Parcell)로 나누어 측정변수를 만들었다. 모형검증은 측정모형을 먼저 확인한 이후에 구조모형을 추정하는 Anderson과 Gerbing(1988)의 2단계 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2단계 분석에 따라 1단계에서는 우선 각 척도별로 문항 꾸러미를 구성하여 측정변수를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측정변수들이 잠재변수를 제대로 측정하는지 알아보는 측정모형검증을 실시하였고, 2단계에서는 1단계에서 만들어진 측정변수와 잠재변수를 토대로 구조모형을 추정하였다. 모형적합도 지수는 표본 크기에 대한 민감성, 모형의 간명성, 해석가능성 등을 모두 고려하기 위해 TLI, CFI, RMSEA를 사용하였다. TLI, CFI는 상대적 적합도 지수로 .90이상 혹은 .95이상이면 모형의 적합도가 좋은 것으로 해석한다(배병렬, 2011). 반면 RMSEA는 절대적 적합도 지수로 .05이하일 때 좋은 적합도로 판정되고 .08이하이면 보통 적합도, .10이상이면 나쁜 적합도로 판정된다(Hu & Bentler, 1999).

그리고 사회부과적 완벽주의와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와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의 관계성 및 영향력을 설명하는 최적모형을 알아보기 위하여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을 비교하였다.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이 내재된 모형(Nested Model)이었기 때문에 모형 간 적합도를 비교하기 위해 χ^2 차이검증을 실시하

였다(김주환, 김민규, 홍세희, 2009; 배병렬, 2011). 검증된 모형에서 매개효과의 유의성은 Shrout와 Bolger(2002)의 권유에 따라 부트스트랩 절차를 사용하여 검증하였으나, 부트스트랩은 매개변인이 두 개 이상일 경우 전체 매개효과 및 유의도를 제시하지만 개별간접경로 및 유의도 검증결과를 제시하지 않는 한계가 있기에서(서영석, 2010) Sobel test를 이용하여 매개변인 각각의 효과성을 검증하였다. Sobel test는 독립변인(X)이 매개변인(M)을 거쳐 종속변인(Y)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는 것으로(Baron & Kenny, 1986) Z_{ab} 값이 1.96보다 크거나 -1.96보다 작으면 “매개변인(M)의 매개효과의 크기는 0이다”라는 영가설을 기각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이 조건을 만족해야 통계적으로 매개효과가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다(Sobel, 1982). 모든 통계분석에는 PASW Statistic 18.0과 AMOS 18.0이 사용되었다.

결 과

사회부과적 완벽주의, 사회적 지지,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사회불안의 관계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전에 예비분석으로 변

표 1. 주요변인간의 평균, 표준편차 및 상관계수(N=357)

변인	1	2	3	4	M	SD
1	-				3.72	.70
2	-.31**	-			3.92	.61
3	.45**	-.18**	-		3.06	.75
4	.38**	-.45**	.48**	-	1.99	.68

주1. 1. 사회부과적 완벽주의, 2. 사회적 지지, 3.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4. 사회불안.

** $p < .01$

인들 간의 평균, 표준편차, 상관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를 표 1에 제시하였다. 사회부과적 완벽주의는 사회적 지지($r=-.31, p<.01$)와 부적 상관이,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r=.45, p<.01$)과 사회불안($r=.38, p<.01$)과는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회적 지지는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r=-.18, p<.01$)과 사회불안($r=-.45, p<.01$)과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은 사회불안($r=.48, p<.01$)과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사회부과적 완벽주의가 높을수록 지각하는 사회적 지

지의 수준은 낮고,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사회불안의 수준은 높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낮을수록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사회불안은 높고,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높을수록 사회불안 역시 높아짐을 의미한다.

측정모형 검증

문항꾸러미를 통해 만들어진 측정변수들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및 상관계수를 표 2에 제시하였다. 측정변수들이 잠재변수를 적

표 2. 측정변수간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및 상관계수(N=357)

변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											
2	.54**	-										
3	.61**	.67**	-									
4	-.29**	-.25**	-.28**	-								
5	-.21**	-.21**	-.23**	.86**	-							
6	-.20**	-.20**	-.26**	.79**	.79**	-						
7	-.32**	-.23**	-.31**	.84**	.77**	.76**	-					
8	.27**	.32**	.40**	-.14*	-.13*	-.12*	-.14**	-				
9	.34**	.34**	.45**	-.19**	-.16**	-.18**	-.18**	.81**	-			
10	.27**	.35**	.47**	-.15**	-.14**	-.16**	-.15**	.77**	.80**	-		
11	.30**	.27**	.42**	-.51**	-.46**	-.45**	-.46**	.38**	.47**	.47**	-	
12	.28**	.25**	.34**	-.37**	-.33**	-.29**	-.29**	.37**	.45**	.40**	.78**	-
M	3.62	3.85	3.70	4.04	3.95	3.69	3.98	3.14	2.94	3.10	2.18	1.80
SD	.79	.78	.86	.67	.68	.68	.60	.79	.82	.80	.71	.72
왜도	-.45	.18	.03	-.73	-.50	-.16	-.30	-.19	-.03	-.25	.70	1.20
첨도	.41	.41	.95	.78	.60	.04	-.09	.05	-.23	-.19	-.10	1.00

주. 1-3은 사회부과적 완벽주의를 3개의 하위요인으로 묶은 것이며, 4-7은 사회적 지지의 하위요인인 4.정서적 지지, 5. 정보적 지지, 6. 물질적 지지, 7. 평가적 지지를 나타냄. 8-10은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을 3개의 하위요인으로 묶은 것이며 11-12는 사회불안의 하위요인인 11.사회적 상호작용 불안, 12.사회적 공포를 나타냄.

* $p<.05$, ** $p<.01$

절하게 측정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측정모형 검증을 실시한 결과, $\chi^2(df=48, N=357)=108.204(p<.001)$ 였고 TLI=.974, CFI=.981, RMSEA=.059(신뢰구간 90% .044-.074)로 좋은 적합도를 나타내어 측정모형이 자료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West 등(1995)의 기준에 따라 측정변수들이 정규분포를 이루고 있는지 검토한 결과 왜도는 -.73에서 1.20, 첨도는 -.23에서 1.00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정규분포 상에 있음을 가정할 수 있었다. 측정변수간의 상관을 살펴보면 사회부과적 완벽주의의 하위요인들은 사

회적 지지의 하위요인들과는 부적 상관을,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사회불안의 하위요인들과는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사회적 지지의 하위요인들은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사회불안의 하위요인들과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고,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의 하위요인들은 사회불안의 하위요인들과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모든 상관계수는 유의수준 .01 혹은 .05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변인들의 하위요인의 요인부하량은 표 3에 제시하였다. 사회부과적 완벽주의의 하위요인들은 .69에서 .90, 사회적 지지는 .85에서

표 3. 측정모형의 요인계수

측정변수	비표준화 요인부하량	표준오차	임계치	표준화 요인부하량
사회부과적 완벽주의				
사회부과적 완벽주의1	1.00			.69
사회부과적 완벽주의2	1.08	.09	12.55	.75***
사회부과적 완벽주의3	1.42	.11	13.33	.90***
사회적 지지				
정서적 지지	1.00			.95
정보적 지지	.97	.03	30.42	.90***
물질적 지지	.91	.04	25.35	.85***
평가적 지지	.83	.03	27.95	.88***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1	1.00			.88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2	1.08	.05	23.78	.91***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3	1.02	.05	22.53	.88***
사회불안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	1.00			.98
사회적 공포	.81	.05	15.92	.79***

주. *** $p<.001$

.95,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은 .88에서 .91, 사회불안은 .79에서 .98의 요인부하량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고, 모든 측정변인의 요인부하량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 < .001$). 따라서 본 연구에서 12개의 측정변수로 4개의 잠재변인을 측정하는 것이 적합함을 알 수 있었다.

모형비교

사회부과적 완벽주의와 사회불안의 관계를 설명하는 연구모형과 경쟁모형 중 가장 적합한 모형을 찾기 위해서 연구모형과 경쟁모형 1, 2, 3을 비교하였다. 경쟁모형 1은 사회적 지지와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간의 직접경로가 제외된 부분매개모형이고, 경쟁모형 2는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와 사회불안간의 직접경로가 제외된 부분매개모형이며, 경쟁모형 3은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와 사회불안간의 직접경로와 사회적 지지와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간의 직접경로가 제외된 완전매개모형이다.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연구모형과 경쟁모형 1, 2, 3 모두 TLI, CFI가 .90 이상으로 좋은 적합도를 보이며, RMSEA도 .08이하로 보통의 적합도를 보여 네 모형이 모두 자료에 적합함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연구모형과 경

쟁모형 1, 2, 3은 내재된 모형이므로 χ^2 차이검증을 실시하였다. 연구모형과 경쟁모형 1을 비교하면 $\Delta\chi^2(1) = .06(p < .001)$ 으로, 자유도가 1일 때 유의한 차이를 의미하는 값인 3.84보다 작아 두 모형은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두 모형 중에서 간명한 모형인 경쟁모형 1이 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모형과 경쟁모형 2를 비교한 결과 $\Delta\chi^2(1) = 2.93(p < .001)$ 으로 χ^2 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아 경쟁모형 2가 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구모형과 경쟁모형 3을 비교한 결과 $\Delta\chi^2(2) = 2.96(p < .001)$ 으로 자유도의 차이가 2일 때 χ^2 의 차이값은 5.99보다 작아 두 모형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모든 모형이 적합한 모형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간명한 모형인 경쟁모형 3을 최종모형으로 선택하였다. 최종모형의 적합도는 TLI=.975, CFI=.981, RMSEA=.059로 자료를 가장 잘 설명하는 모형임을 알 수 있었다.

구조모형 검증

사회부과적 완벽주의, 사회적 지지,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사회불안의 관계를 가장 잘 설명하는 최종모형의 모수추정치를 그림 2에 제시하였다. 모수추정치를 살펴본 결과 모

표 4.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의 적합도 지수비교

	χ^2	df	$\Delta\chi^2$	TLI	CFI	RMSEA (신뢰구간 90%)
연구모형	108.204	48		.974	.981	.059(.042-.072)
경쟁모형 1	108.259	49	.06	.975	.982	.058(.041-.071)
경쟁모형 2	111.136	49	2.93	.974	.981	.060(.042-.072)
경쟁모형 3	111.162	50	2.96	.975	.981	.059(.041-.0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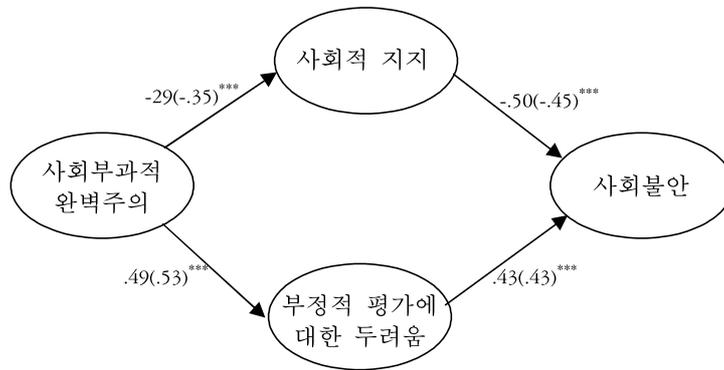


그림 2. 최종모형의 모수추정치

주. *** $p < .001$. ()안에 제시된 계수는 표준화 수치임

든 경로계수가 유의함을 알 수 있었으며 이를 각각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사회부과적 완벽주의는 사회적 지지($B = -.29$, $p < .001$)에 부적 영향을 미치고,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B = .49$, $p < .001$)에는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완벽주의 성향이 높을수록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의 수준은 낮고,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은 높아짐을 의미한다. 사회적 지지는 사회불안($B = -.50$, $p < .001$)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의 수준이 높을수록 사회적 상황에서의 불안수준이 낮음을 의미한다.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은 사회불안($B = .43$, $p < .001$)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자신이 부정적으로 평가를 받을 것이라는 생각에 대해 느끼는 두려움의 수준이 높을수록 사회적인 상호작용 상황이나 다른 사람들이 보는 특정상황에서의 불안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증

자료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최종모형에서

변수들의 간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부트스트랩(Bootstrap) 절차를 사용한 결과를 표 5에 제시하였다. 원자료 ($N = 357$)에서 무선 표집으로 생성된 10,000개의 표본이 모수추정에 사용되었으며, 신뢰구간은 95%로 설정하였다. 결과를 살펴보면 유의수준 .05에서 모든 직·간접효과의 경로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부과적 완벽주의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 지지와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와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와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개별 변인의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Sobel test 절차를 실시한 결과를 표 6에 제시하였다. 사회부과적 완벽주의와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가 매개하는 경로의 $Sobel\ test(z) = 5.13$ ($p < .001$)으로 나타났고, 사회부과적 완벽주의와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매개하는 경로의 $Sobel\ test(z) = 6.34$ ($p < .001$)로 나타나 두 매개변인의 각각의 매개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

표 5. 사회적 지지와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의 매개효과 검증

	직접효과	간접효과 (신뢰구간 95%)	총효과
사회부과적 완벽주의 → 사회적 지지	-.35 ^{***}		-.35 ^{***}
사회부과적 완벽주의 →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53 ^{***}		.53 ^{***}
사회부과적 완벽주의 → 사회불안		.38 ^{***} (.30~.46)	.38 ^{***}
사회적지지 → 사회불안	-.45 ^{***}		-.45 ^{***}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 사회불안	.43 ^{***}		.43 ^{***}

주. ^{***} $p < .001$

표 6. 사회적 지지와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의 개별 매개효과 검증

	비표준화 회귀계수	표준오차	Sobel test(z)
사회부과적 완벽주의 → 사회적 지지	-.41	.07	
사회적 지지 → 사회불안	-.50	.05	5.13 ^{***}
사회부과적 완벽주의 →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68	.08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 사회불안	.43	.05	6.34 ^{***}

주. ^{***} $p < .001$

타났으며,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보다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의 매개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사회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고, 사회부과적 완벽주의 성향이 있는 대학생들이 어떤 과정으로 사회불안을 겪게 되는지를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선행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사회부과적 완벽주의, 사회적 지지,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사회불안의 관계에 대한 모든 경우의 수를 고려하여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을 설정한 후, 적합도를 비교하여 변수들 간의 관계를 가장 잘 설명하는 모형을 탐색적으로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주요 시사점을 논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와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개인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를 사회적 지지로 정의하고 그 영향력을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완벽주의와 사회불안의 관계에 관한 연구는 국내는 물론 해외에도 다수 존재하고 있다(김나예, 2012; 김민선, 서영석, 2009; 김성주, 2012;

최은비, 2009; Blatt, 1995; Flett & Hewitt, 2002; Wei, Mallinckrodt, Russell, & Abraham, 2004). 또한 많은 연구자들이 그 관계에서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자기제시동기, 자의식, 인지적 정서조절 등과 같은 인지적 성향과 관련된 요인을 매개변인 혹은 조절변인으로 설정하여 연구하였다. 하지만 불안 및 스트레스의 수준을 낮추어주고 있는 사회적 지지를 매개변인으로 사용한 연구는 많이 존재하지 않았다. 완벽주의와 불안 혹은 스트레스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효과를 밝히고자한 국내의 연구로는 청소년의 완벽주의 성향과 사회적 지지가 수행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최은비(2009), 여대생의 완벽주의와 취업스트레스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확인한 이은지(2010)의 연구 등이 있었다. 각각의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가 불안 혹은 스트레스의 수준을 낮춰주는 역할을 하는 것은 본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의 역할과 같았지만 기존의 연구는 청소년, 여대생이라는 한정적인 범위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구였기에 보다 더 넓은 대상인 대학생의 사회불안을 이해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회불안이 사회적 상황과 관련되어 있는 만큼 개인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의 수준 또한 대학생의 사회불안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밝히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다.

둘째, 사회부과적 완벽주의 성향이 높을수록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는 낮고,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적 지지는 낮을수록,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은 높을수록 사회불안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구자의 첫 번째 가설을 지지하는 결과로 사회부과적 완벽주의와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사회불안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김민선, 서영석, 2009; 조용래, 원호택, 1999; Arnkoff & Glass, 1989; Clark & Wells, 1995)와 일치하는 결과였다. 즉,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을 지닌 사람은 타인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하고, 자신이 항상 완벽해야 한다고 믿기 때문에 (Deffenbacher, Zwemer, Whiman, Hill, & Sloan, 1986) 불안해지는 것에 대해 지나치게 걱정하는 경향을 나타낸다고 해석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의 결과는 사회적 지지가 불안에 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신노라, 안창일, 2004; 최은비, 2009; 홍정무, 2005; Billings & Moos, 1981)와도 일치하였다.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 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타인의 기대, 평가, 인정 등을 추구하기 때문에 정서적 문제와 관련될 가능성이 크다(한기연, 1993). 즉 사회부과적 완벽주의자들은 타인이 기대하는 수행을 자신의 기준으로 정해서 행동하므로 타인의 평가에 매우 민감하며, 타인을 비지지적이라 생각한다. 이는 결국 사회적인 상황에서 불안을 겪을 수 있는 것과 연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사회부과적 완벽주의와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와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의 매개효과를 확인한 결과, 두 매개변인은 유의한 매개효과를 가지고 있었으며 사회부과적 완벽주의와 사회불안의 관계를 완전히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적 지지와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사회부과적 완벽주의와 사회불안의 사이를 부분매개할 것이라는 연구자의 가설과는 다르게 나타난 결과이며, 사회부과적 완벽주의와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선행연구(김성주, 2012; Frost & DiBartolo, 2002)에서 부정적 결과에 대한 두려움이 평가염려 완벽주의와 사회불안의 관계를 부분매개한 것과는 다르게 나타난 결과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회부과적 완벽주의 성향이 강할수록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높아지고,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을 강하게 느낄수록 사회불안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부과적 완벽주의가 직접적으로 사회불안을 유발하기 보다는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사회불안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나타낸다. 즉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고 타인의 인정을 받고자 노력하는 사회부과적 완벽주의자들은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의 높은 기대를 맞추어야 한다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신념이 대학생이 되어서도 이어지기 때문에 타인의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것에 대하여 염려하게 된다(Wu & Wei, 2008). 타인들로부터 부정적으로 평가받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은 자신이 수용 또는 거절당하는 것과 직접적으로 연관되기 때문에 결국 사회불안을 증가시키게 된다고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사회적 지지 역시 사회부과적 완벽주의와 사회불안의 사이를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또한 사회부과적 완벽주의가 사회적 지지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사회불안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타인이 자신에게 높은 기준을 부여했다고 생각하며 그에 부응하는 행동을 하는 사회부과적 완벽주의자는 초점이 자신이 아닌 타인에게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자신의 수행이나 행동에 대해 타인으로부터 지지를 받는 정도를 적게 느낄 수 있다는 것 또한 확인되었다. 이는 사회부과적 완벽주의와 사회적 지지의 관계를 연

구한 선행연구와 같은 결과로 나타났다(홍정무, 2005; Mackinnon et al., 2011; Sherry & Hall, 2009; Sherry et al., 2008). 하지만 사회적 지지의 경우 개인의 지각수준과 같은 주관적인 평가에 기초하기 때문에 사회부과적 완벽주의자들의 인지능력과 지각수준에 따라 지지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 즉 타인이 보기에 지지 수준이 낮아보이더라도 본인이 충분한 지지를 받고 있다고 지각한다면 사회불안을 낮추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는 실제 상담 장면에서 내담자 본인의 의지로 사회불안의 수준을 낮출 수 있음을 의미한다.

넷째, 매개변인 각각의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사회적 지지의 수준보다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의 수준이 사회불안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완벽주의와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인지적 요인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Rapee와 Heimberg(1997)에 의하면 다른 사람들의 평가기준을 예측하는 사람들은 부정적인 자기 표상으로 인해 자신의 수행이 예측된 평가기준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하게 되고, 부정적 평가에 따른 사회적 결과를 과도하게 생각하게 된다. 부정적인 평가를 예상함으로써 생리적, 인지적, 행동적 측면에서 불안이 발생하게 되고, 이는 다시 자신의 외모나 행동에 대한 정신적 표상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 과정은 순환적 절차로 일어난다. 따라서 인지적 모델 혹은 다른 인지적 요인을 변인으로 설정하여 후속연구를 한다면, 부정적 평가와 관련된 정보 처리의 왜곡과 편향이 사회불안의 발생과 유지에 기여하는지에 초점을 두고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실제 상담 장면에서 다음과 같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학생들은 사회부과적 완벽주의 성향이 높을수록 부정적인 평가에 대한 두려움을 크게 느끼고,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클수록 사회불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사회불안을 호소하는 대학생들을 상담할 때 그들의 완벽주의 성향이 오히려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을 발생시켜 사회적인 상황에서 불안을 느끼는 것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즉 완벽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대학생들은 자신이 불완전하면 부정적으로 평가되거나 거절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대부분 비판에 방어적으로 반응하게 된다. 하지만 이런 반응이 완벽주의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고, 사회적 상황에서 고립되거나 수행에 대해 불안을 느끼게 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사람이 친밀해지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리는 일이 필요한데, 여기에는 자신의 장점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결점, 속상했던 기억들을 수용하는 것이 포함된다. 하지만 완벽주의자들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수용된 경험이 부족하고 본래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면 사람들이 자신을 싫어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자신의 나약함을 드러내는 것을 어려워하며, 자기개방과 자기표현을 하는 것을 두렵게 느낀다고 알려져 있다(정승진, 2008). 그 결과 ‘인정받기 위해서는 완벽해야 한다’는 비합리적 신념이 강화되어 다른 사람의 비판이나 부정적인 평가에 대해 더 민감해지며, 이는 다시 다른 사람과 함께 하는 상황에서 불안을 느끼게 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에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상담 장면에서 상담자는 내담자가 객관적인 상황을 인지하고,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는 연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타인이 기대하는 수준이 아닌 자기 자신의 성취에 만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아울러 인지적인 측면에서 떠오르는 자동적 사고(예: “저 사람은 나를 싫어할 거야”, “내가 이것밖에 못하다니, 나는 무능력해” 등), 비합리적인 신념(예: “발표를 못하다니 나는 멍청해, 멍청한 나는 실패한 사람이야” 등)을 조금 더 합리적인 사고(예: “저 사람이 내 말에 단답으로 대답했지만 나를 싫어해서 그런 건 아니야”, “발표를 할 때 말을 조금 더듬긴 했지만 실패자가 된 건 아니야” 등)로 대체하는 개입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사회부과적 완벽주의 성향이 높을수록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의 수준은 낮고, 그 결과 사회불안의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는 내담자 본인이 지각하는 지지의 수준에 따라 그가 느끼는 사회불안의 수준이 조절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상담자는 지지적이고 수용적으로 내담자와 관계를 형성하여 내담자가 느끼는 사회적인 불안의 수준을 낮출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더하여 상담자는 내담자가 지각하지 못한 주변의 지원 및 지지 체계를 반영하고, 내담자가 그를 인식하게 함으로써 사회적 상황의 불안에 대하여 대처할 수 있는 안전기지를 만들어줄 수 있다. 내담자가 자신이 주변 사람들로 부터 다양한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스스로 여유를 가지고, 다양한 상황에서 보다 더 적응적인 수행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외에도 사회공포증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진 인지행동적 집단상담(권석만, 2013) 역시 내담자의 적응을 돕는 데 이용될 수 있다. 즉 내담자가 사회적 상황에서 갖는 자신과 상

황에 대한 부정적 사고와 비합리적인 신념을 보다 긍정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로 수정하는 인지적 재구성, 집단원들 앞에서 발표를 하는 것과 같이 두려워하는 상황에 대한 반복적인 노출, 발표자와 청중의 역할을 연습해보는 역할 연습, 불안을 이완시키는 이완훈련 및 심상법 등을 통해 사회적인 상호작용이나 타인의 평가에 민감한 내담자들을 도울 수 있을 것이다. 개인상담은 1대 1로 진행되지만 집단상담은 지도자를 포함하여 여러 명의 집단원들이 참여한다. 그러므로 사회불안을 겪는 내담자들에게 집단상담은 그들이 가진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한 걸음을 내딛는 시도이며, 부정적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을 비롯한 다양한 상황에서의 대처반응과 대인관계 유형 등을 학습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집단상담에서 중요한 치료적 요인으로 작용하는 집단 내의 응집력(Yalom & Leszcz, 2008)은 집단원 개개인에게 사회적 지지와 같은 자원으로 용기를 심어주는 역할을 함으로써 사회적인 상황에서 그들이 조금 더 안정감을 가질 수 있게 도와줄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서울과 경기도, 부산, 대구, 대전, 경남 지역의 4년제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되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특성으로 일반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더욱 더 다양한 지역과 다양한 학교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더 나아가 학생 외의 집단(예: 청소년, 직장인 등)에는 동일한 연구 결과를 적용하기에 한계가 있으므로 다양한 연령대 및 교육배경, 생활환경을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매개변인으로 설정된 사회적 지지와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에 관한 선행연구가 다른 변인의 선행연구에 비해 부족했다는 점이다. 변인 간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탐색적인 연구였기에 이진숙과 현명호(2012)의 연구를 토대로 두 변인간의 부적 관계를 가정하였고, 상관분석 결과 두 변인 간 부적상관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모형검증 단계에서는 두 변인이 유의한 관계를 갖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후속연구에서는 두 변인의 인과관계를 확인하여 관계의 방향을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셋째, 최종모형에 관한 추후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본 연구는 사회불안이 발생하고, 유지되는 것에 기여하는 완벽주의의 특성을 이해하고자 하였고, 선행연구를 토대로 사회적 지지 및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을 매개변인으로 설정한 후 모든 경우의 수를 고려하여 모형을 비교하였다. 다양한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 및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의 부분매개효과는 확인되었지만, 본 연구에서는 두 매개변인이 완전매개효과를 가지는 모형이 채택되었다. 따라서 모형의 안정성 및 일반화와 관련해서 다른 대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보여진다.

참고문헌

- 권석만 (2013). 현대 이상심리학-2판. 서울: 학지사.
- 김나예 (2012). 완벽주의와 내현적 자기애가 부정적 평가 두려움을 매개로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대구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민선, 서영석 (2009). 평가염려 완벽주의와

- 사회불안의 관계: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자기제시동기의 매개효과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8(3), 525-545.
- 김성주 (2012). 대학생의 평가염려 완벽주의와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부정적 및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인지적 정서조절의 매개효과.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순희 (2009). 부정적 및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과 사회불안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윤희, 서수균 (2008). 완벽주의에 대한 고찰: 평가와 치료.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0(3), 581-613.
- 김주환, 김민규, 홍세희 (2009). 구조방정식모형으로 논문쓰기.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김향숙 (2001). 사회공포증 하위유형의 기억편향.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현정, 손정락 (2006). 대학생의 완벽주의와 자아존중감 및 우울, 주관적 안녕감 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1(2), 345-361.
- 남궁혜정, 이영호 (2005). 이차원 완벽주의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4(4), 917-936.
- 문 경 (1998). 완벽주의 차원과 자기효능감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선영 (2003). 사회불안 유발상황의 구분 및 사회불안 하위유형의 차별적 특성.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지원 (1985). 사회적지지 척도 개발을 위한 일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배병렬 (2011). Amos 17.0 구조방정식모델링 (원리와 실제). 서울: 청람.
- 서영석 (2010). 상담심리 연구에서 매개효과와 조절효과 검증: 개념적 구분 및 자료 분석 시 고려 사항.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2(4), 1147-1168.
- 서울경제 (2012). <http://economy.hankooki.com/lpage/society/201202/e20120215180044117920.htm>
- 손은정 (2013). 여대생의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와 폭식행동 간의 관계에서 대인관계 불일치, 지각된 사회적 지지, 우울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5(2), 309-330.
- 신노라, 안창일 (2004). 성인 애착 유형과 자기개념, 효능감, 대처 양식, 사회적 지지 수준과 대인불안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3(4), 949-968.
- 원호택, 송종용 (1988). 스트레스 상황에서 사회적 지지가 성취과제의 수행과 불안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7(1), 21-30.
- 이미화 (2001). 완벽주의 성향의 순기능과 역기능-성취목표, 심리적 안녕감, 우울과 관련하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미화, 류진혜 (2002). 완벽주의 성향의 순기능과 역기능: 성취목표, 스트레스, 심리적 안녕감, 우울과 관련하여. 청소년학연구, 9(3), 293-316.
- 이영자 (1995).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과 우울 및 불안과의 관계. 서울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은지 (2010). 여대생의 완벽주의와 사회적 지지가 취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정운, 최정훈 (1997). 한국판 사회공포증 척

- 도(K-SAD, K-FNE)의 신뢰도 및 타당도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6(2), 251-264.
- 이진숙, 현명호 (2012). 내현적 자기애의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소극적 대처와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9(4), 161-181.
- 정승진 (2008). 완벽주의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 서울: 학지사.
- 조미영 (1999). 가정의 경제적 불안, 부모의 우울, 아동의 사회적 지지 지각이 아동의 행동 문제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용래, 원호택 (1999). 사회공포증에 대한 인지적 평가 3: 역기능적 신념검사의 개발 및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8(1), 141-162.
- 최유열 (2012). 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진로성숙도가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동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은비 (2009). 청소년의 완벽주의 성향과 사회적 지지가 수행불안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하정희, 장유진 (2011). 대학생들의 완벽주의 성향과 주관적 행복감 및 사회적 지지제공의 관계: 사회적 지지수혜의 매개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3(2), 427-449.
- 한기연 (1993). 다차원적 완벽성-개념, 측정 및 부적응과의 관련성.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허현정 (2004). 완벽주의 성향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열등감을 매개변인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홍석인, 현명호 (2007). 완벽주의와 우울의 관계에서 우울반응양식의 효과검증.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 논문집.
- 홍정무 (2005). 완벽주의와 사회적 지지 요청 및 지각 스트레스와의 관계.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5th ed.). 서울: 학지사.
- Anderson, J. C., & Gerbing, D. W. (1988).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 Practice: A Review and Recommended Two-step Approach. *Psychological Bulletin*, 103, 411-423.
- Arnkoff, D. B., & Glass, C. R. (1989). Cognitive Assessment in Social Anxiety and Social Phobia, *Clinical Psychology Review*, 9, 61-74.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 - 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1173-1182.
- Billing, A. G., & Moos, R. J. (1981). The Role of Coping Responses and Social Resources in Attenuating the Stress of Life Events. *Journal of Behavioral Medicine*, 4, 139-157.
- Blatt, S. J. (1995). The Destructiveness of Perfectionism: Implications for the Treatment of Depression. *American Psychologist*, 50, 1003-1020.
- Burns, D. D. (1980). The Perfectionist's Script for Self-Defeat. *Psychology Today*, 34-52.
- Campbell, J. D., & Di Paula, A. (2002). Perfectionistic Self-Beliefs: Their Relation to Personality and Goal Pursuit. In G. L. Flett & P. L. Hewitt(Eds.), *Perfectionism Theory, Research, and Treatment*(pp.181-198).

-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Carver, C. S., & Scheier, M. F. (1982). An Information-Processing Perspective on Selfmanagement. In P. Karoly and F. Kanfer(Eds.) *Self-Management and Behavior Change: From Theory to Practice*, 93-128. New York: Pergamon Press.
- Chang, E. C. (2006). Perfectionism and Dimensions of Psychological Well-being in a College Student Sample: A Test of a Stress-Mediation Model.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25(9), 1001-1022.
- Chow, G. S-Y. (2002). *The Cultural Context of Perfectionism and Psychological Outcome: Investigating a Stress-Mediated Model with Asian American and Student*. Doctoral Dissertation. The University of Michigan, Michigan, USA.
- Clark, D. M., & Wells. A. (1995). A Cognitive Model of Social Phobia. In R. G. Heimberg, M. R. Liebowitz, D. A. Hope, & F. R. Schneier, *Social Phobia. Diagnosis, Assessment and Treatment*. New York; Guilford.
- Dean, P. J., Range, I. M., & Goggin, W. C. (1996). The Escape Theory of Suicide in College Students: Testing a Model that Includes Perfectionism.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26(2), 181-186.
- Deffenbacher, J. L., Zwemer, W. A., Whisman, M. A. Hill, R. A., & Sloan, R. D. (1986). Irrational Beliefs and Anxiety.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10, 281-291.
- Enns, M., & Cox, B. (2005). Perfectionism, Stressful Life Events, and the 1-year Outcome of Depression.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29(5), 541-553.
- Flett, G. L., Besser, A., & Hewitt. P. L. (2005). Perfectionism, ego defense styles, and depression: A comparison of self-reports versus informant ratings. *Journal of Personality*, 73(5), 1355-1396.
- Flett, G. L., & Hewitt, P. L. (2002). Perfectionism and Maladjustment: An Overview of Theoretical, Definitional, and Treatment Issues, In G. L. Flett & P. L. Hewitt (Eds.), *Perfectionism Theory, Research, and Treatment* (pp.5-13).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Flett, G. L., Hewitt, P. L., Blankstein, K. R., & O'Brien, S. (1991). Perfectionism and learned resource fullness in depression and self-esteem.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2, 61-68.
- Frost, R. O., & Dibartolo, P. M. (2002). Perfectionism, Anxiety, and Obsessive-Compulsive Disorder. In G. L. Flett & P. L. Hewitt (Eds.), *Perfectionism Theory, Research and Treatment* (pp.341-371).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Frost, R. O., Heimberg, R. G., Holt, C. S., Mattia, J. I., & Neubauer, A. L. (1993). A Comparison of Two Measures of Perfectionism.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4(1), 119-126.
- Frost, R. O., Marten, P. A., Lahart, C., & Rosenblate, R. (1990). The dimensions of perfectionism.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14, 449-468.
- Hart, K. E., Hittner, J. B., & Paras, K. C. (1991). Sense of Coherence, Trait Anxiety, and the Perceived Availability of Social

- Support Original Research Article,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25(2), 137-145.
- Hewitt, P. L., & Flett, G. L. (1991). Perfectionism in the Self and Social Contexts: Conceptualization, Assessment, and Association with Psychopatholog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0, 456-470.
- Hewitt, P. L., & Flett, G. L. (1993). Dimensions of Perfectionism, Daily Stress, and Depression.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2(1), 58-65.
- Hu, L., & Bentler, P. M. (1999). Cut 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6(1), 1-55.
- Kawamura, K. Y., Hunt, S. L., Frost, R. O., & DiBartolo, P. (1998). *Perfectionism, anxiety and depression: Are the relationships independent?* Poster presented at the meeting of the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Behavior Therapy, Washington, DC.
- Leary, M. R. (1983). A Brief Version of The Fear of Negative Evaluation Scale.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9, 371-375.
- Mackinnon, S. P., Sherry, S. B., Graham, A. R., Stewart, S. H., Sherry, D. L., Allen, S. L., Fitzpatrick, S., & McGrath, D. S. (2011). Reformulating and Testing the Perfectionism Model of Binge Eating among Undergraduate Women: A Short-term, Three-wave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8(4), 630-646.
- Mattick, R. P., & Clarke, J. C. (1998).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Measures of Social Phobia Scrutiny Fear and Social Interaction Anxiety. *Behavior Research and Therapy*, 36, 455-470.
- Rapee, R. M., & Heimberg, R. G. (1997). A Cognitive-Behavioral Model of Anxiety in Social Phobia. *Behavior Research and Therapy*, 35(8), 741-756.
- Russel, D. W., Kahn, J. H., Spoth, R., & Altmaier, E. M. (1998). Analyzing data from experimental studies: a latent variabl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pproach.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5(1), 18-29.
- Sherry, S. B., Law, A., Hewitt, P. L., Flett, G. L., & Besser, A. (2008). Social Support as A Mediator of The Relationship Between Perfectionism and Depression: A Preliminary Test of The Social Disconnection Model.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5(5), 339-344.
- Sherry, S. B., & Hall, P. A. (2009). The Perfectionism Model of Binge Eating: Tests of an Integrative Mode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6(3), 690-709.
- Shrout, P. E., & Bolger, N. (2002). Mediation in experimental and nonexperimental studies: New procedures and recommendations. *Psychological Methods*, 7, 422-445.
- Sobel, M. E. (1982). Asymptotic Confidence Intervals for Indirect Effects in Structural Equation Models. In S. Leinhardt, *Sociological Methodology* 1982, 290-312. Washington, DC: American Sociological Association.
- Stoeber, J., & Otto, K. (2007). Positive Conceptions of Perfectionism: Approaches, Evidence, Challenge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Review*, 10(7), 295-319.

- Turner, R. S. (1981). Social Support as a Contingency in Psychological Well Being,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2, 357-365.
- Watson, D., & Friend, R. (1969). Measurement of Social-Evaluative Anxiet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33, 448-457.
- Wei, M., Mallinckrodt, B., Russell, D. W., & Abraham, W. T. (2004). Maladaptive Perfectionism as a Mediator and Moderator between Adult Attachment and Depressive Mood.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1, 201-212.
- West, S. G., Finch, J. F., & Curran, P. J. (1995).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nonnormal variables: Problems and remedies, In R. H. Hoyle (E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Concepts, Issues, and Applications*. Thousand Oaks: Sage. 56-75.
- Wu, T. F., & Wei, M. (2008). Perfectionism and Negative Mood: The Mediating Roles of Validation from Others Versus Self.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5, 276-288.
- Yalom, I. D., & Leszcz, M. (2008). 최신 집단정신치료의 이론과 실제 [*The theory and practice of group psychotherapy*]. (최해림, 장성숙 역). 서울: 하나의학사. (원전은 1995년에 출판)
- 원 고 접 수 일 : 2013. 12. 31
수정원고접수일 : 2014. 02. 10
게 재 결 정 일 : 2014. 02. 24

The Relation Between 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and Social Anxiety of College Students: The Mediator Effects of Social Support and Fear of Negative Evaluation

JiYeon Park

NanMee Yang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was designed to understand the process of social anxiety among college students with prescribed perfectionism. In order to investigate the mediator effect of social support and fear of negative evaluation between perfectionism and social anxiety, four models were compared. 357 college students were recruited for this study, and two major conclusions were listed below. First, the structural model showing better fit were the model in which the direct link between perfectionism and social anxiety were not included. Second, after testing the significance of each mediator, the level of fear with negative evaluation showed much more effects on social anxiety compared to the level of social support. These results would help understanding the social anxiety of university students and could be applied in counseling sessions. In particular, the findings in this study provides the guideline of leading the clients with social anxiety.

Key words : *Social anxiety, 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Social support, Fear of negative evaluation, University students*